목차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2쪽
나의 집(김소월)
길(윤동주)
제망매가(월명사)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4쪽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이용악)
월훈(박용래)

2008학년도 수능 … 6쪽
와사등(김광균)
사령(김수영)
한거십팔곡(권호문)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 8쪽
여승(백석)
못 위의 잠(나희덕)
결빙의 아버지(이수익)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 10쪽
꽃밭의 독백-사소 단장(서정주)
나무를 위하여(신경림)
만언사(안조원)

2009학년도 수능 … 12쪽
님의 침묵(한용운)
나뭇잎 하나(김광규)
춘면곡(작자미상)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14쪽
발열(정지용)
거문고(김영랑)
대설주의보(최승호)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 16쪽
소년에게(이육사)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황지우)
어부단가(이현보)

2010학년도 수능 … 18쪽
승무(조지훈)
지리산 뻐꾹새(송수권)
면앙정가(송순)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 20쪽
강우(김춘수)
성탄제(김종길)
서해(이성복)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 22쪽
길(김소월)
적막강산(백석)
단가육장(이신의)

2011학년도 수능 … 24쪽
자화상(윤동주)
선제리 아낙네들(고은)
그 나무(김명인)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26쪽
파초(김동명)
수철리(김광균)
견회요(윤선도)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 28쪽
새 1(박남수)
어머니의 그릇(정일근)
노래와 이야기(최두석)

2012학년도 수능 … 30쪽
구두 한 켤레의 시(곽재구)
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
북찬가(이광명)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32쪽
알 수 없어요(한용운)
배를 매며(장석남)
사미인곡(정철)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34쪽
또 다른 고향(윤동주)
자화상·2(오세영)
멸치(김기택)

2013학년도 수능 … 36쪽
폭포(김수영)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오규원)
마음의 고향 6 - 초설(이시영)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학년도 6평)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A]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김소월, 「나의 집」-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B]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15.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하고 있다.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18. (다)의 ⓐ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A. 간밤에 부던 <u>바람</u> 만정 <u>도화(桃花)</u>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엇 하리오

B. <u>바람</u> 불어 쓰러진 <u>나무</u>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을쏘냐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13. ② / 14. ④ / 15. ④ / 16. ① / 17. ⑤ / 18. ①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학년도 9평)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A] 우리는 머리맡에 엎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노령: 러시아의 영토.
* 자래운:키운.
* 아무을 만, 니코리스크: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설룽한: 춥고 차가운.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B]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박용래, 「월훈(月暈)」-

* 월훈: 달무리.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4.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ㅇ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 /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 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아라사: 러시아.

ㅇ 아버지도 어머니도 / 젊어서 한창 땐 /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 /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 /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이용악, 「우리의 거리」–
* 우라지오: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③ '아무을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15.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13. ② / 14. ⑤ / 15. ③ / 16. ①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학년도 수능)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등」-

(나)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어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어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어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死靈)」-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는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의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13. ⑤ / 14. ③ / 15. ① / 16. ② / 17. ② / 18. ③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6평)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녯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女僧)」-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뼛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 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1.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2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회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20. ② / 21. ② / 22. ⑤ / 23. ④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9평)

(가)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낯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잎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다)

사립을 젖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임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않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흉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閒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언사」–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한민: 한가로운 백성.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낯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0.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3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32.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33.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었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얽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8. ② / 29. ② / 30. ① / 31. ② / 32. ② / 33. ④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수능)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뜩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결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A]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낯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례」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28. ① / 29. ③ / 30. ② / 31. ② / 32. ④ / 33. ④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학년도 6평)

(가)

[A]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믈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B]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C]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

[D]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E]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숯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숯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 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13. ⑤ / 14. ⑤ / 15. ④ / 16. 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학년도 9평)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넋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춥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이육사, 「소년에게」-

* 진준가: 진주인가.
* 한가: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 -

* 청하: 푸른 연잎.
*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덤불.
*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② (가)의 '넋'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러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 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의 의미이겠네.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싹'이 '잎'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26. (다)의 ⓐ와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잊은 때가 있으랴

① '만첩'은 ⓐ와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③ ⓐ는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④ ⓑ는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⑤ ⓐ와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21. ② / 22. ③ / 23. ④ / 24. ④ / 25. ⑤ / 26. ⑤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학년도 수능)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믄*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A]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 길믄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히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B]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긎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앙정가」–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낯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와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또리'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나타난다.
② 2연의 '실제의 뻐꾹새'는 '여러 마리의 뻐꾹새'와 상반되는의미를 형성한다.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② ⓑ의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쉼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긎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32. ③ / 33. ② / 34. ⑤ / 35. ② / 36. ① / 37. ②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학년도 6평)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19. ④ / 20. ④ / 21. ③ / 22. ④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9평)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다) 단가 육장

이신의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랠시고
㉡두어라 우로(雨露)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 들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② '오라는 곳'이 없음.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한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가)의 '정주 곽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7.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 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13. ① / 14. ④ / 15. ④ / 16. ⑤ / 17. ② /18. ③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가) 자화상(自畵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A]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메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다) 그 나무

김명인

[B]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畵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군산 묵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② ㉡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③ ㉢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④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⑤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13. ④ / 14. ④ / 15. ② / 16. ④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학년도 6평)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A]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걱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수철리 :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 1 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혜여 보소서.

〈제 2 수〉

[B]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3 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4 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 5 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망령된 :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②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③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23.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뫼'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③ / 20. ⑤ / 21. ② / 22. ③ / 23. ⑤ / 24. ②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학년도 9평)

(가)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어머니는 그릑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릑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릑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릑을 앞에 두고
그릑, 그릑 중얼거려 보면
그릑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릑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A] ┌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A] │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릑이라 배웠다
[A] │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A] └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릑의 물은 다르다
[B] ┌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B] │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B] │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B] └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릑」–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C] ┌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C] └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D] ┌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D] └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E] ┌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E] │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E] │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E] └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 '그믁'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② [B] :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믁'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③ [C] :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④ [D] :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⑤ [E] :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31. ⑤ / 32. ④ / 33. ⑤ / 34. ④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학년도 수능)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A] 쑥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B]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C]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D]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E]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영 : 고개.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밧긔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너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顔)*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잦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올고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닫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꿈을 둘너 상시과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내고 있다.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32.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출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③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④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⑤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3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⑤ (나)는 (가)에 비해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4. 〈보기〉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고흐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존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일을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해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와 다 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① [A] :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② [B] :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③ [C] : 여러 번의 수선을 거친 구두에는 구두의 도구성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 있군.
④ [D] : 고향 텃밭의 허름함과 헌 구두를 비교하여 초면과 구면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군.
⑤ [E] :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낡은 구두에서 드러나고 있군.

35.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② '산 너머 남촌에는'이 〈1〉, 〈2〉, 〈3〉의 1연마다 반복되어 시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③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④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⑤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36.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1. ⑤ / 32. ③ / 33. ④ / 34. ⑤ / 35. ③ / 36. 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학년도 6평)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A]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맡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낮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앙금(鴦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샐꼬.

– 정철, 「사미인곡」–

* 앙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① ㉠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②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③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④ ㉣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⑤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둣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둣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② '부둣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③ '부둣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④ '부둣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⑤ '부둣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13. ④ / 14. ① / 15. ③ / 16. ⑤ / 17. ⑤ / 18. ④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학년도 9평)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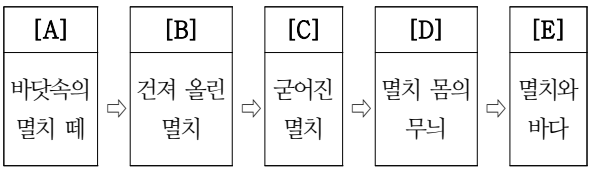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7. ③ / 28. ⑤ / 29. ② / 30. ④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학년도 수능)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옷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짚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시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① (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④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⑤ (가)의 대상이 지닌 숭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34.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②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 : '폭포'의 낙하가 지닌 항상성을 나타낸다.
② ㉡ : '폭포'가 지닌 긍정적 속성들이다.
③ ㉢ :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④ ㉣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⑤ ㉤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32. ⑤ / 33. ③ / 34. ③ / 35. ①